

콜레스테롤과 식후 혈당의 더블 케어,

바이오스 라이프 C 플러스



BIOS LIFE
BIOS LIFE - C PLUS[®]
바이오스 라이프 C 플러스
귀리식이섬유/비타민&미네랄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BIOS LIFE[®]
BIOS LIFE - C PLUS[®]
바이오스 라이프 C 플러스
귀리식이섬유/비타민&미네랄

미국산(OEM)
건강기능식품 | 60포(390g)

PH 2022000000
BIOS LIFE - C PLUS[®]
바이오스 라이프 C 플러스
귀리식이섬유/비타민&미네랄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건강기능식품
NET WT 6.5g

BIOS LIFE - C PLUS[®]
바이오스 라이프 C 플러스
귀리식이섬유/비타민&미네랄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건강기능식품
NET WT 6.5g



BIOS LIFE®

BIOS LIFE - PLUS®

바이오스 라이프 C 플러스

귀리식이섬유/비타민&미네랄



BIOS LIFE - PLUS®
바이오스 라이프 C 플러스
귀리식이섬유/비타민&미네랄
많은 폴리스테롤 개선 식후 혈당치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건강기능식품
NET WT 6.5g

BIOS LIFE - PLUS®
바이오스 라이프 C 플러스
귀리식이섬유/비타민&미네랄
많은 폴리스테롤 개선 식후 혈당치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건강기능식품
NET WT 6.5g

BIOS LIFE

바이오스 라이프 브랜드 스토리

바이오스 라이프는 유니시티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입니다. 동시에 물질적 자유와 육체적 건강함을 함께 누리는 풍요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유니시티 제품을 섭취하고 건강한 식사 습관과 함께 쉽고 효과적인 운동을 통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는 것이야말로 바이오스 라이프를 완성할 수 있는 길입니다.

BIOS LIFE – PLUS[®]

- ▶ 콜레스테롤과 식후 혈당의 더블 케어
기능성원료 귀리식이섬유가 함유된 하루 2포로 콜레스테롤과 식후 혈당을 동시에 케어 합니다.
- ▶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까지 모두 섭취
비타민 B군과 C, E, 크롬을 비롯하여 현대인의 식생활에 꼭 필요한 식이섬유의 섭취에 도움을 드립니다.
- ▶ 부원료로 구아검, 펙틴 등 다양한 식이섬유와 함께
대두추출물(식물스테롤), 사탕수수추출물(폴리코사놀), 국화꽃분말 등 함유
바이오스 라이프 C 플러스에는 유니시티의 연구 노하우와 기술력이 기반이 된 다양한 부원료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과 식후 혈당의 더블 케어,

바이오스 라이프 C 플러스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생활습관이며 이 중에서도 건강한 식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식습관에서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영양소뿐만 아니라 건강의 유지와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식이섬유의 섭취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이오스 라이프 C 플러스는 다양한 식이섬유와 함께 특히 귀리식이섬유를 간편한 주스 타입으로 섭취할 수 있는 제품으로, 귀리식이섬유 함량을 더욱 높여 식후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동시에 개선해주는 제품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부원료로 대두추출물(식물스테롤), 사탕수수추출물(폴리코사놀), 국화꽃분말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완성해 주는 바이오스 라이프 C 플러스로 건강을 지키십시오.

바이오스 라이프 C 플러스 영양 · 기능 정보



회 분량 : 1포(6.5g)

회분량 당	합량	%영양성분기준치	회분량 당	합량	%영양성분기준치
열량	15 kcal		비타민B ₁	2 mg	143 %
탄수화물	4 g	1 %	나이아신	24 mg NE	160 %
식이섬유	3.8 g	15 %	비타민B ₆	7 mg	467 %
단백질	0 g	0 %	비오틴	20 µg	67 %
지방	0 g	0 %	엽산	220 µg	55 %
나트륨	0 mg	0 %	비타민B ₁₂	25 µg	1,042 %
칼슘	60 mg	9 %	비타민C	50 mg	50 %
귀리식이섬유	1.5 g		비타민E	14 mg α-TE	127 %
베타카로틴	0.35 mg		크롬	100 µg	333 %
비타민B ₁	2 mg	167 %	* %영양성분기준치 : 1일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		

- 제품번호 : 28586
- 내용량 : 6.5 g x 60포(총 390 g)
- 섭취량 및 섭취방법 : 1일 2회, 1회 1포(6.5 g)를 250 ~ 300 ml의 냉수에 타서 드십시오.
- 제품유형 : 건강기능식품
- 귀리식이섬유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베타카로틴 :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 비타민B₁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 비타민B₂ / 나이아신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타민B₆ :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비오틴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 엽산 : 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 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비타민B₁₂ :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 비타민C :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철의 흡수에 필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비타민E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크롬 :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푸드, “귀리”

귀리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푸드로, 현대인의 식습관에 꼭 필요한 식이섬유를 다량 함유함으로써 혈중 콜레스테롤을 개선하고 식후 혈당상승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귀리식이섬유는 지방의 소화를 위해 소장으로 분비된 담즙산을 배변으로 배출시킴으로써 담즙산의 순환을 막아 인체 스스로 담즙산 생성을 위해 콜레스테롤을 소비하게 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건강하게 관리하는데 기여합니다.



바이오스 라이프 C 플러스 섭취대상자

- 식후 혈당 개선이 필요하신 분
- 기름진 서구식 식사습관 등으로 인해 콜레스테롤 개선이 필요하신 분
- 폐경기 이후 중·장년 여성과 같이 콜레스테롤 개선이 필요한 연령층
- 평소 식습관에서 야채나 과일을 통한 식이섬유 섭취가 충분하지 않은 분
-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로 생활에 활력을 높이고 싶으신 분



기능성원료 귀리식이섬유 인체적용시험결과

귀리식이섬유로서 5 g 씩 섭취 시, 식후 30분에서 귀리식이섬유를 섭취한 그룹이 미섭취 그룹에 비해 식후 혈당 상승 정도가 약 20% 감소된 것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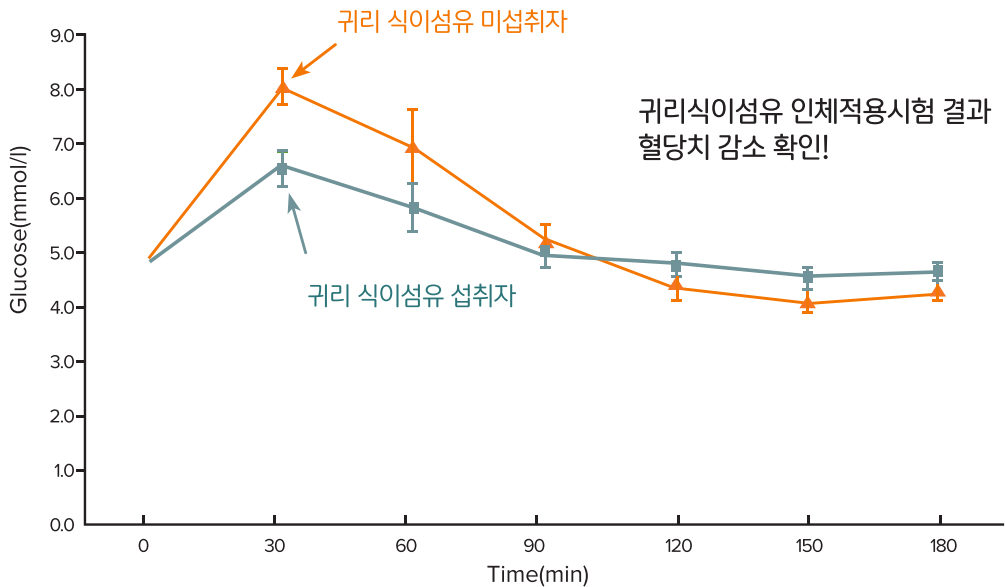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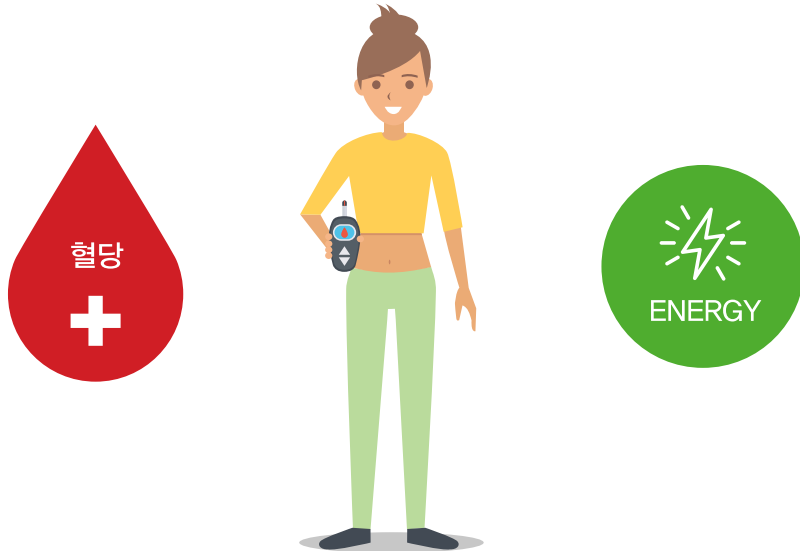


Figure 1 Mean (\pm s.e.m) plasma glucose concentrations for subjects (n=10) after a test meal including the beverage with 5 g of β -glucans from oats (○) and a test meal with the control beverage (○). *Significantly different ($P=0.005$) compared to control at 30 min (paired samples t-test).

※ 출처 : Björklund M et al, Changes in serum lipids and postprandial glucose and insulin concentrations after consumption of beverages with β -glucans from oats or barley : a randomised dose-controlled trial. Eur J Clin Nutr 59:1272-1281, 2005.
 ※ 인체적용시험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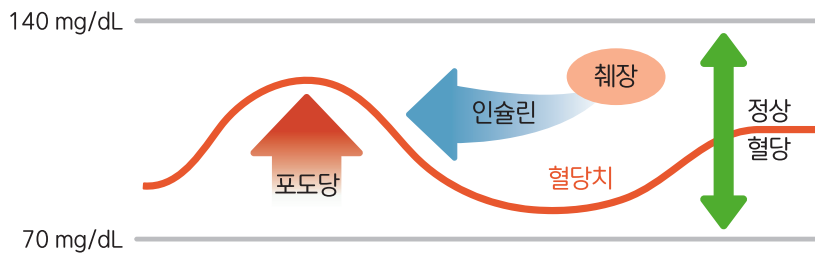
혈당이란?

혈당이란 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포도당을 의미합니다. 온몸으로 공급된 혈당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도움을 받아 세포 내부로 들어가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혈당조절, 왜 중요할까?

우리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잠을 자거나, 숨을 쉬거나, 생각을 할 때에도, 에너지가 있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몸 안의 세포는 혈액으로 흐르는 영양소를 이용하여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중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원료는 포도당으로 특히 적혈구와 뇌세포의 경우 반드시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사용해야하므로 혈당 공급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혈당이 항상 일정수준으로 유지되어야 우리 몸이 에너지를 원활하게 공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식사 전후로 달라지는 혈당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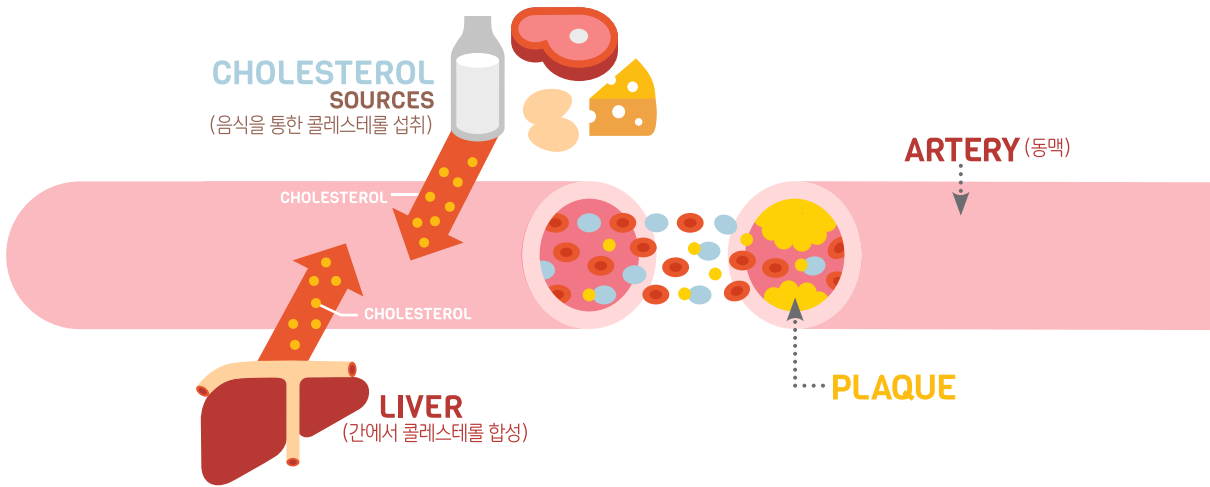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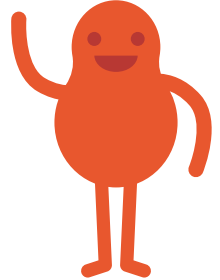
혈당 수치는 일정한 농도로 유지되지만, 식사를 하기 전과 후는 다릅니다. 식사를 하면 포도당으로 혈중에 들어가므로 식후의 혈당치는 식전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보통 공복 시 혈당의 정상치는 70 ~ 100 mg/dL이고, 식후 혈당은 사람마다 다르나 140 mg/dL 이하를 정상치로 봅니다.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이란?

콜레스테롤은 동물에서만 발견되는 지방성분의 일종으로 대부분 간에서 합성(70%) 되고 일부는 음식으로부터 섭취(30%)되며, 우리 몸 속의 세포막, 신경세포의 수초, 스테로이드 호르몬 및 담즙산의 원료, 근육이나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성분으로 신체를 유지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성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 속에 콜레스테롤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질 경우 지방 성분이 혈관 벽에 쌓여 동맥경화, 고혈압, 뇌졸중 등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GOODBYE LDL



콜레스테롤 수치

평소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200 mg/dL 이하, LDL 콜레스테롤은 130 mg/dL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당뇨병 환자나 심장병 환자 등은 LDL 콜레스테롤을 100 mg/dL 이하로 조정해야 바람직합니다. 당뇨병이 있으면서 심장병이 같이 있는 환자나 흡연 등의 나쁜 습관이 고쳐지지 않는 경우에는 70 mg/dL 이하를 권장합니다.

고지혈증은 20 ~ 30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동맥경화증을 진행시키기 때문에 수치가 조금 높다고 해서 바로 동맥경화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눈앞의 수치에 너무 신경쓰기보다 식사와 운동 부족 등에 주의하여 지질을 정상화하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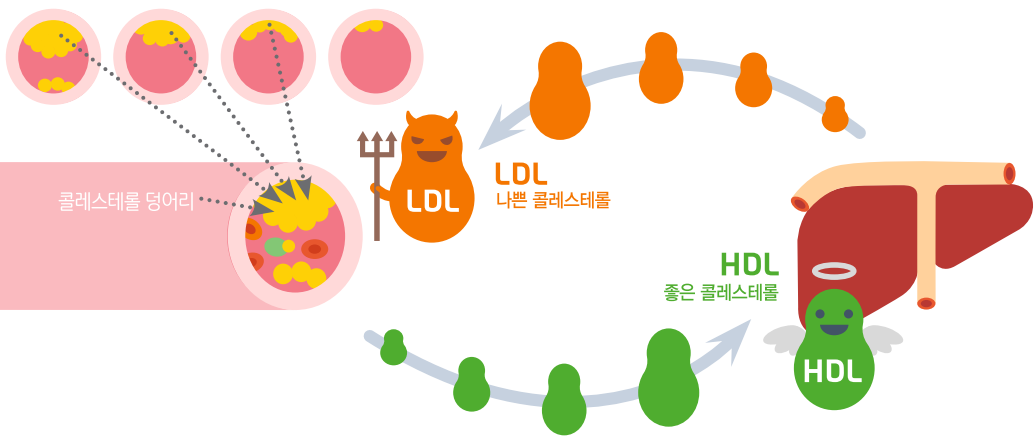
	정상	경계	위험
총 콜레스테롤	200 미만	200 ~ 239	240 이상
LDL 콜레스테롤	130 미만	130 ~ 159	160 이상
HDL 콜레스테롤	60 이상		40 미만
중성지방	150 미만	150 ~ 199	200 이상

콜레스테롤 수치 판단 기준 (단위: mg/dL)

좋은 콜레스테롤 VS 나쁜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은 저밀도지단백(LDL)과 고밀도지단백(HDL), 중성지방으로 나누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LDL은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나쁜 콜레스테롤로, HDL은 높을수록 몸에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 좋은 콜레스테롤로 구분됩니다.

- **HDL** : 혈관벽 및 세포로부터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송하여 과다 공급된 콜레스테롤을 제거
- **LDL** : 간에서 혈관을 통해 세포로 콜레스테롤을 운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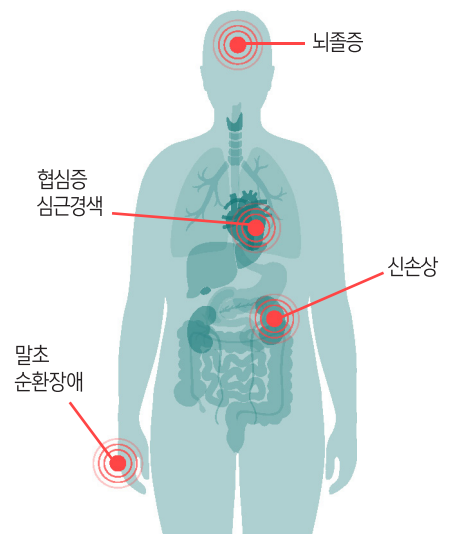
콜레스테롤은 어떤 과정을 거쳐 혈관 질환을 일으키나?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침착되면 혈액이 지나가는 통로인 혈관을 좁아지게 하고 신체의 각 기관에 공급될 혈액의 양이 줄어들면서 각종 혈관 질환을 일으킵니다.

LDL은 혈관벽 안쪽에 파고들어 각종 염증반응을 일으킨 후 덩어리처럼 뭉쳐져 혈관벽에 붙은 상태인 죽상경화반을 형성하거나 전체적으로 혈관벽을 두꺼워지게 합니다. 사실 혈관벽은 나무의 나이테가 늘어나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노화에 따라 저절로 두꺼워집니다. 그런데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혈관벽이 더 두꺼워지게 됩니다. 반면 HDL은 혈관벽에 쌓여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HDL 수치가 낮아지면 혈관에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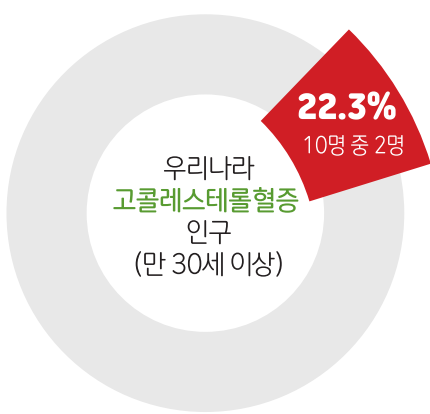
이렇게 두꺼워진 혈관벽으로 인해 혈관이 좁아지면 원활한 혈액흐름을 방해해 각종 혈관 질환에 노출될 위험성이 커집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 생기는 관상동맥질환과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생기는 뇌경색증, 사지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는 말초혈관질환 등이 있습니다.





2019 국민건강 통계

본 통계자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행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8기 1차년도(2019년)> 자료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제풍 정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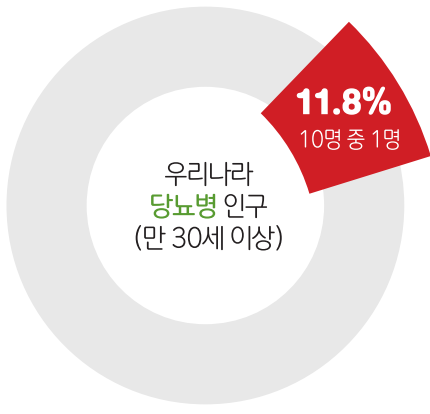
우리나라
고콜레스테롤혈증
인구
(만 30세 이상)

22.3%
10명 중 2명

연령별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 및 유병률 추이(만 30세 이상)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만 30세 이상)은 2019년 남자 21.0%, 여자 23.1%로 남녀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의 경우 2005년 7.3%에서 2019년 21.0%로 약 14%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당뇨병 인구
(만 30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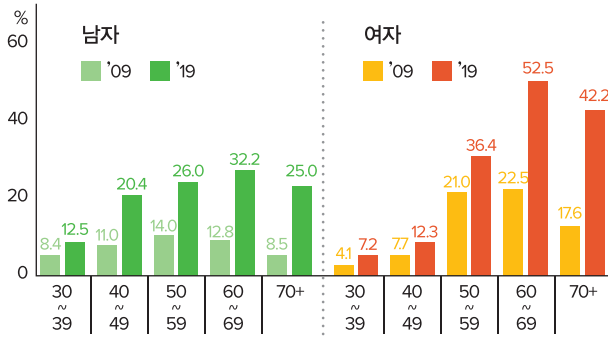
11.8%
10명 중 1명

연령별 당뇨병 유병률 및 유병률 추이(만 30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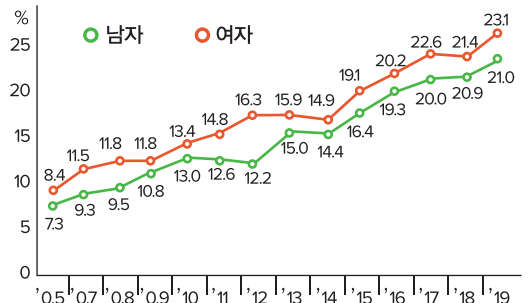
당뇨병 유병률(만 30세 이상)은 2019년 남자 14.0%, 여자 9.5%이며, 남녀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이 증가하여 70세 이상에서는 10명 중 약 3명(남자 30.0%, 여자 31.6%)이 당뇨병 유병자였습니다.



〈연령별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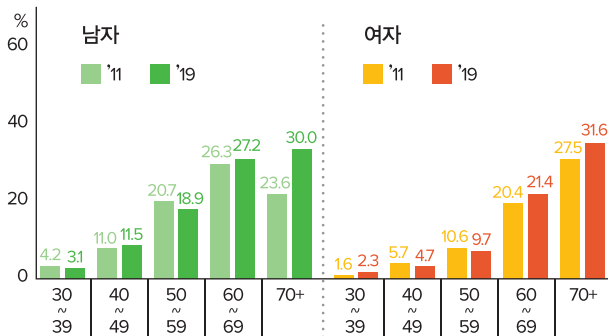


〈연도별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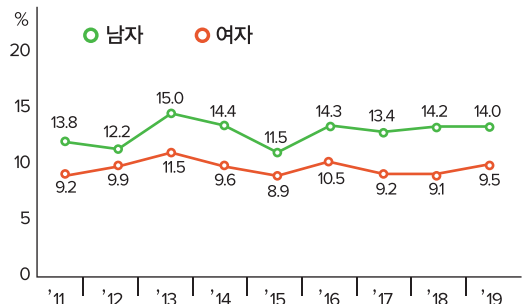


※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 : 총콜레스테롤이 240 mg/dL 이상이거나 고콜레스테롤강화제를 복용한 분을 (만 30세 이상)

〈연령별 당뇨병 유병률〉



〈연도별 당뇨병 유병률 추이〉



※ 당뇨병 유병률 : 공복혈당이 126 mg/dL 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화제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사용하거나, 당화혈색소 6.5% 이상인 분을 (만 30세 이상)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저작물의 모든 이미지 및 설명 등에 대한 저작권은 유니시티코리아(유)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복제 및 도용할 수 없습니다.
유니시티코리아(유)의 허락 없이 복제 및 도용을 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복제 및 게재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민·형사 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UNICITY

판매업소명: 유니시티코리아(유)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328 고객 상담실 : 1577-8269 <http://korea.unicity.com>
수출국 및 제조업소명 : 미국 / PRO-FORM Laboratories